

사회

광주문예회관 너무 낡았다

교향악단 연주에 에어컨 '달달달' 의자 삐걱거리고 얼룩져 불쾌
찢끔예산에 매년 땀질 보수 그쳐

#지난달 말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수윈시향 공연 현장.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아 순회 공연중인 수윈시향의 연주회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날 기자가 앉은 자리는 1층 정중앙 VIP 석.

피날레곡인 베토벤 '운명'의 연주가 시작되자 냉방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특히 조용하게 연주되는 2악장에서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음악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자극 무대 위 지휘자와 현악주자들께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신경이 쓰였다. 제주아트센터, 장원성산아트홀 등 수준급 공연장에서 연주를 마치고 온 수윈시향 관계자들이 광주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

고민이 됐다. 이날의 난감한 상황은 지난달 초 전국연극제 초청작으로 문예회관 무대에 올랐던 '나타폴' 공연 때도 겪어왔다. 이날의 좌석은 1층 사이드. 공연이 시작되지만 배우들의 대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시끄럽게 돌아가는 냉방기 때문이었다. 결국 극 중반에 냉방장치를 끄고서야 제대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극을 보고 나오는 관객들은 저마다 불만을 쏟아냈다.

광주의 대표적 문화 공간인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시설이 노후화돼 관람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여기에 관람 매너 안내 등 운영의 모도 살리지 못해 관객들이 공연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

남은 냉방시설의 폐해는 뮤지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무대인 교향악단이나 클래식 독주회 등에서 두드러진다. 일부 자리는 관객들에게 '공포의 좌석'으로 불리는 게 현주소다.

또 개관 이후 단 한차례도 교체되지 않은 낡은 의자 역시 보물이 일어나 있고 얼룩져 있는 등 청결문제와 삐걱거림으로 관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1990년 문을 연 광주문예회관은 지역에서 유일한 1000석 이상 공연장. 보통 지역 문예회관들은 20년이 넘으면 대대적인 리노베이션 작업을 진행하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회관측은 마스터 플랜을 통한 리모델링은 염두를 내지 못하고



다. 대신 매년 한달 정도의 보수 기간을 갖고 급한 곳을 막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에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극장 조명기 등을 교체했으며 올해는 7월 20일부터 5억원의 예산을 투입, 소극장 전기 공사와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문예회관 관계자는 "냉방시설 개선을 위해 LG 아트센터 등 공연장 등을 답사하기는 했지만 예산과 공사 기간 때문에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확보해 관객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낙서인가 예술인가

플리 낙서 처벌 요구... "작품이다" 맞서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제작한 광주도심 예술 조형물 '플리'(Folly)에 낙서와 그림을 그려넣은 20대 예술가를 두고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2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 미국 유명 건축가 프란시스 코 산인이 디자인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면에 설치된 플리(Folly) '사랑방'에 누군가 낙서와 그림(본보 6월 26일자 1면)을 그렸다면 문화재단이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중이다.

광주문화재단측은 잡지사 인터뷰 등 정황상 낙서를 주도한 장본인으로 그래픽티(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 예술가인 고

수형(여·25)씨를 지목했다. 경찰은 일단 고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고씨가 플리에 그래픽티를 한 후 비슷한 연령대의 젊은이들이 낙서나 그림을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예술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고씨 등의 낙서를 지우는 데만 1000만원이 들었으며 추가 낙서를 막기 위해 야간경비까지 해야 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씨는 경찰에서 "일종의 예술행위를 했으며, 플리를 디자인한 건축가에게 이 같은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옥단지 사업 국가보조금 전용 토지 기증자 조작 탈세둑기까지

영암읍장 등 3명 입건

독지자의 선행을 탈세 수단으로 이용하고, 국가보조금까지 전용한 현지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국가보조금을 전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영암군 영암읍장 이모(53)씨와 보조금을 불법 전용한 담당 공무원 유모(53)씨, 뇌물을 제공한 토지 소유자 최모(65)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9년 영암 군서면 일대에 한옥단지 개발사업이 시작되자 같은 해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역사복원 공사 용도로 받은 5000만원을 변경승인 없이 전용해 사용한 혐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이씨는 보조금을 전용해 한옥단지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사업지구 토지를 저가로 먼저 매입해 2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영암 출신 재일사업자 하정용씨가 지난 2009년 예술인을 위한 창작관 부지로 한옥단지 내 1필지를 영암군에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자 하씨 대신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최씨로부터 3.3㎡(1평)당 22만원에 토지를 매입한 뒤 기증자를 하씨가 아닌 최씨로 조작해 양도소득세 3000만원 상당을 탈세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지난 2010년 4월과 2011년 10월 각각 1332㎡(400여 평)·661㎡(200여평)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영암군에 기증한 바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니원침 (8600) 김장두



채팅서 만난 여성 성폭행

서부경찰, 20대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2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범모(26)씨를 중간강 혐의로 불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씨는 지난 1일 새벽 4시에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모텔에서 간호사 A(여·25)씨를 1차례 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와 이날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잠에서 깨어난 뒤 자신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 1일 오전 10시께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행인 문 개주인에 벌금 50만원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2일 개의 목줄을 제대로 매지 않아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문모(여·2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개가 집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물어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해 7월 26일 밤 9시30분께 자신이 기르던 생후 1년3개월된 잡종개가 집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행인의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광산구 새벽 주택 화재

2일 새벽 2시50분경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김모(57)씨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900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이 불로 안방 등 주택 내부 99㎡가 불에 탔으나 김씨는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주택의 작은방에서 연기와 화염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교문 옆 아파트 출입구 허가 공무원 감사 착수

광주시 남구가 출입구를 초등학교 정문과 나란히 붙여 설계·시공한 아파트(본보 4월26일자 6면)의 건축허가 내준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2일 남구 감사관실에 따르면 주월동 제석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최근 "건축허가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해 사업 전반에 걸쳐 감사에 들어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업무와 짜고 굴비 판매금 되돌려 받아

○판매업자와 짜고 판매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굴비제조업체 공장장과 판매업자가 나란히 경찰서 행. ○2일 영광경찰에 따르면 굴비 제조 업체 공장장 우모(55)씨는 지난 2005년부터 판매업자 송모(54)씨와 거래하면서 판매금액을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1억5000만원을 챙겼다는 것. ○우씨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시중의 3분의 1 가격으로 굴비를 판매하다가 최근 회사측이 설치한 CC(폐쇄회로)TV에 범행 사실이 모두 찍히면서 달ا.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www.ocskj.com

광주화교 중국학교 유치부 신입생 모집

광주에 단 한곳뿐인
6년제 중국학교

- 모집인원 60명(선착순 모집)
- 지원자격 2006년 이후 2007년 12월 이전 출생자
- 원서교부 2012년 7월 1일 ~ 7월 9일(9일간) 오전 10:00~오후 04:00
- 원서교부장소 유치부교실 ☎ 232-4163, 4165
- 원서접수 2012년 7월 10일 ~ 7월 14일 (오전 10:00~오후 03:00)
- 원서접수장소 유치부교실 ☎ 232-4163, 4165
- 구비서류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매, 소명합판 사진 3매(3×4cm), 주민등록등본 1통
- 서류전형일 2012년 7월 15일(합격자대상자만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 원서료 10,000원 (원서 교부시)
- 유치부등록일 2012년 7월 16일 ~ 7월 20일
- 소집일 2012년 8월 17일 오전 10시
- 개원일 2012년 8월 21일 (오전 8시 40분 ~ 오후 2시)

"유의사항"

- ① 생년월일 미달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단 대기자 등록 가능 : 정원 미달 시 생일 순으로 입학가능)
- ② 등록후에도 지원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무효로 합니다.
- ③ 학기중에는 입학이 불가능합니다.(華僑 제외)
- ④ 입학 후 본교의 학업을 포기할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학비는 산정 후 반환됩니다.
- ⑤ 기타 문의 사항은 본교 교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교무실 ☎ 232-4163 - 전화상담시간 : 오전 10:00~12:00

光州華僑中國學校 Tel.232-4163

